



대한민국 패키징 산업의 미래를 보다

제10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지난 2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일산 킨텍스에서 패키징산업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과 함께 '제10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Korea Star Awards) 2016'을 개최했다. 패키징 산업 종사자들의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내 패키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였다.

패키징,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패키징산업 전문가와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가 주관한 '제10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행사가 지난 4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벌써 10번째를 맞는 행사.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패키징 종합행사인 이번 시상식에는 많은 참여자와 수상자가 함께해 대한민국 패키징 산업의 밝은 미래를 가늠케 했다. 과거 패키징은 제품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그 기능이 1차원적 의미에서 그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패키징은 '제품 보호' 역할 외에도 소비자와 제품이 만나도록 돕는 '마케터'로 역할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이번에 진행된

'제10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시상식'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다.

행사에 참여한 이영수 생기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는 소비자 행동패턴을 읽어 변화를 강행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패키징 역시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이영수 원장은 "패키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을 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했다. 이는 그동안 패키징에 대한 인식과 위상에 많